

2022 이영민 개인전

2022. 8. 10. - 2022. 8. 15

경기도자미술관 4전시실

 경기도자미술관
Gyeonggi Museum of
Contemporary Ceramic Art



Lee Young-Min Solo Exhibition

2022 이영민 개인전

2022. 8. 10. - 2022. 8. 15

경기도자미술관 4전시실

전시 축하 글

도자기는 인간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 갖고 있으며 생활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가장 기초적인 도구이다. 도자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 유물(토기로부터)을 남기고 있으며 나라마다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로 저장식품이 발달하여 발(鉢)과 항아리(壺) 종류를 다른 나라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달항아리를 현재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상·하를 따로 제작하여 붙여서 형태를 완성하는 독특한 방법을 갖고 있다. 완성된 기물(器物) 표면에 어떠한 질감(그림, 음·양각, 다양한 유약)도 표현하지 않고 순백색, 백유를 발라 자연의 색을 표현하는 것은 도공이 갖고 있는 자연의 감성을 몸으로 체득하여 표현한 결과물이다. 작가는 이러한 달항아리를 현대에 재조명하여 음각 기법으로 문양을 넣고 코발트(푸른색)를 표면에 발라 음영의 발색에 의한 기법을 선보이고 있다. 이미 몇몇 작가들이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작가는 또 다른 독특한 자신만의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마치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부끄럼 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갖추어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금번 전시가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모쪼록 성공리에 마치기를 바란다.

2022. 7. 30 김병울

전시 축하 글

7月中旬我收到李煥頭老师关于此次个展的作品，让我感到意外的是他的作品完全不见原来的风格。

李煥頭老师的作品不拘泥于韩国传统陶艺的工艺范畴，而是从传统出发用现代陶艺的观念去重新构筑作品。作品直观的通过月亮罐、青花、刻画、文字（韩、中、英）、描金等方式表现，也许这是他在现阶段对于文化、工艺、符号融合的思考。作品内容上展现的是童趣、嘻哈和乐观的感觉，也许这是他现阶段面临问题的一种态度。

艺术源于生活，作品是艺术家性情的表现，但对于一件作品的见解则仁者见仁智者见智，或许能透过作品去窥视作者心境是一种探险。在此祝贺李煥頭老师个展圆满成功。

2022年7月19日

陈恩泽 江西省中级工艺美术师

联合国教科文组织陶艺学会（IAC）会

7월 중순 이영민 선생으로부터 금번 개인전에 관한 작품을 사진을 받아보았는데 생각했던것보다 기존의 스타일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작품이었다.

이영민 선생의 작품은 한국 전통도예의 공예에 얽매이지 않고 전통을 시발점을 삼아 현대도예의 관념으로 작품을 재구성하였다. 작품에 대한 표현에서 달항아리, 청화, 각화, 문자(한·중·영), 묘금(描金) 등 방법을 직관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그가 현시점에서 문화, 공예, 기호 등의 융합에 대해 고민한 결과물 이라고 생각한다. 작품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린 아이들의 즐거움, 힙합, 낙천적인 느낌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또한 그가 현재 문제를 직면하는 태도를 반영했을 것이다.

예술은 삶에서 비롯되고 작품은 예술가의 감정을 나타낸다. 그러나 한 작품에 대한 견해는 같은 사물이라도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작품을 통해 작가의 생각을 추측한다는 것은 일종의 탐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이영민 선생의 개인전이 원만한 성공을 거두기를 기원한다.

2022년 7월 19일

진은택(陈恩泽) 장시성 중급 공예 미술가

IAC국제도자아카데미 회원

욕망

인간은 누구나 이상(理想)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욕망(欲望)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한없이 갖고 싶어 하는 끝없는 탐욕, 대다수의 무관심과 가진 자의 욕심, 자신만의 잣대로 세상을 바로 보는 오만, 귀찮은 문제는 남에게 떠미는 무책임,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다는 이기심은 마음이 황폐해질 뿐만 아니라 생명과 환경이 파괴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에 만족하거나 혹은 만족하지 못해도 그 이상의 욕구는 끊임없이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간의 욕구는 선천적인 생리적 욕구와 후천적 또는 경제적으로 형성된 파생적 욕구로 대변 된다.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사회적 동물이므로, 개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생리적 욕구를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야만 하고, 사회적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욕구를 실현시켜야 한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한 사회구조 안에서 생존 보장 외에 신분의 지위와 자산의 소유 정도에 따라 인간의 욕구도 다양해졌다.

이번 전시는 욕망과 유년 시절의 순수성을 주제로 작업을 하였다. 많은 예술가는 동심을 주제로 음악, 미술, 춤 등으로 저마다의 상상력을 가지고 동심의 세계를 연출하면서 유년 시절의 꿈을 예술로 표현하기도 한다. 작가 또한 유년 시절의 기억 속에 잠재되어있는 아련함과 추억을 회상하며 동심이라는 상상의 세계를 통하여 사람들과 그 감성을 공감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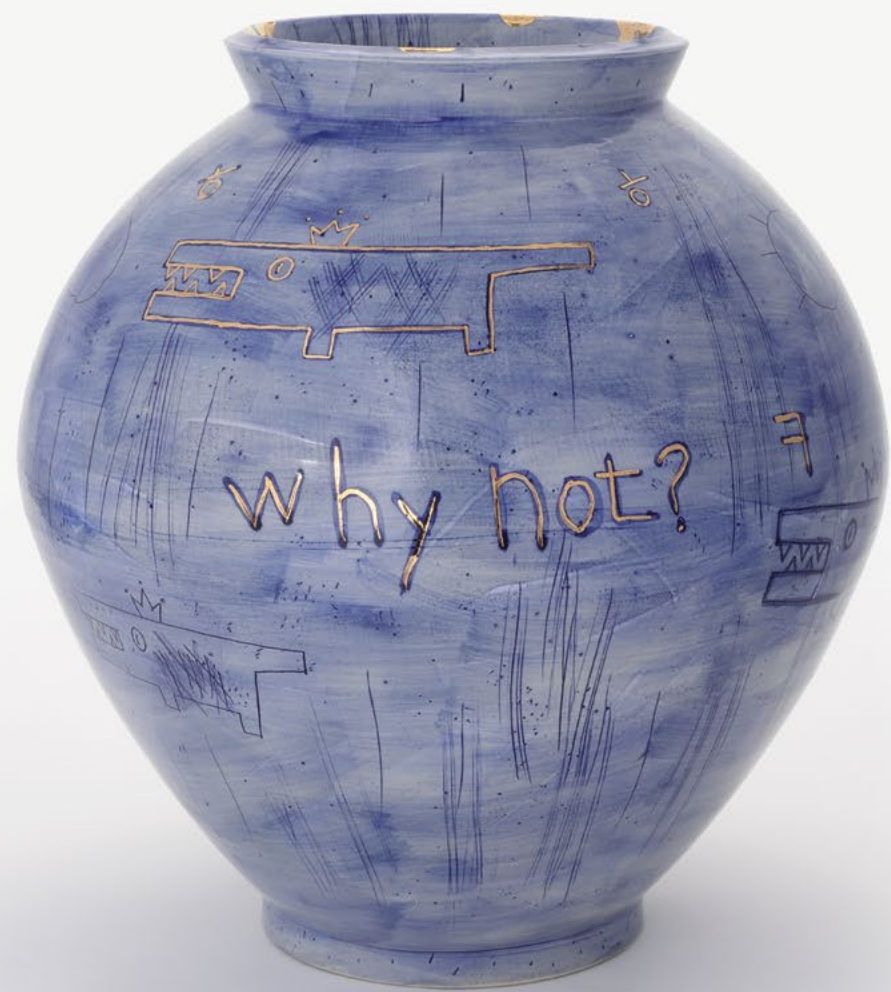
성인이 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은 많은 부분이 퇴색되었지만 다양한 경험으로 살아온 어른들의 동심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desire

Everyone has ideals and lives with each desire. The endless greed that I want to have, the greed of the majority of the indifference and the greed of the possessor, the arrogance of seeing the world right on my own standards, the irresponsibility of the troublesome problem, the selfishness of wanting to live a little more comfortably can be devastated as well as the destruction of life and environment. Even if you are satisfied or not satisfied with the present, your desires are acting as a driving force to constantly live human beings. Human desires are divided into innate physiological desires and derived desires formed acquired or economically. Humans are social animals, as Aristotle said, so they must meet their physiological needs basically to maintain their lives and realize their needs to ensure social survival. However, in the social structure where civilization developed, human desires varied according to the status of status and the degree of possession of assets in addition to guaranteeing survival.

This exhibition was about the desire of anyone and the purity of childhood. Many artists expressed their childhood dreams as art and were satisfied with their surrogateness, directing the world of concentricity with their imaginations such as music, art, and dance. The artist also recalls the dimness and memories latent in the memories of childhood and tries to sympathize with people and their emotions through the imaginary world of concentricity.

As an adult, the purity of a child like a child has faded a lot, but in the process of becoming an adult, I tried to express the concentric world of adults who have lived with various experiences.



390 x 390 x 430 mm



230 x 230 x 230 mm



260 x 260 x 270 mm



390 x 390 x 430 mm



370 x 370 x 380 mm



330 x 330 x 330 mm



330 x 330 x 330 mm



280 x 280 x 270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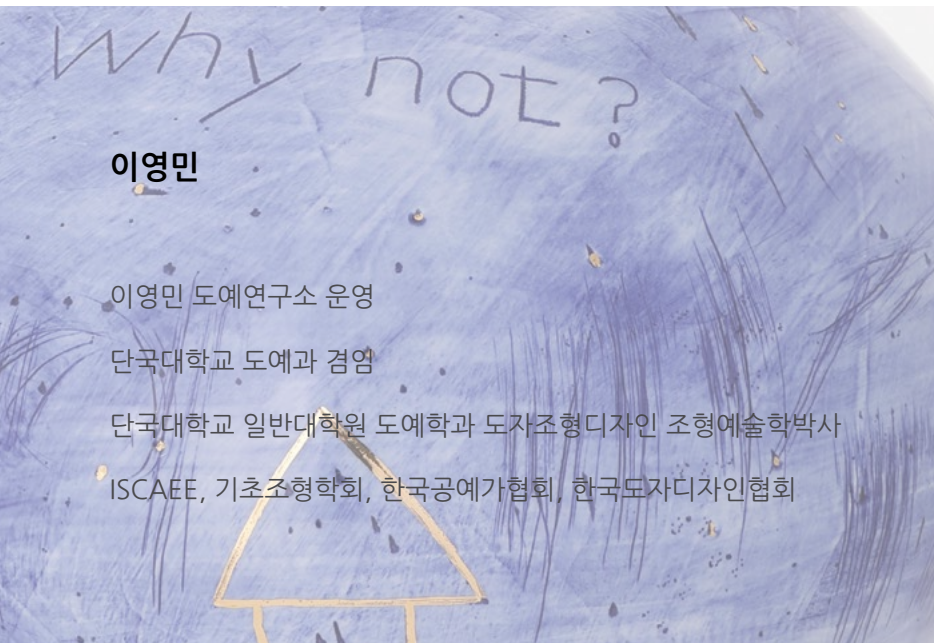
310 x 310 x 310 mm



330 x 330 x 330 mm



260 x 260 x 290 mm



이영민

이영민 도예연구소 운영

단국대학교 도예과 겸임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도자조형디자인 조형예술학박사

ISCAEE, 기초조형학회, 한국공예가협회, 한국도자디자인협회

Lee Young-Min Solo Exhibition